



- 주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49 공공운수노조회관 6층 • 전화: 02-4977-888 • 팩스: 02-497-0444
- 날짜: 2025년 11월 27일(목) • 담당: 정성용 전국물류센터지부장 010-2465-3712 • 이메일: coukeyrun@gmail.com

## “연이은 쿠팡물류센터 아간노동자 사망사망,

### 중대재해 기업 쿠팡을 처벌하라!”

- 쿠팡 동탄1센터, 경기광주5센터 사망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11월 27일(목) 10:00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 1.公正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1월 21일(금) 쿠팡동탄1센터 아간조로 근무하시던 고 김○○님께서 쓰러져 앰뷸런스에 실려갔지만 끝내 사망하셨습니다.
3. 고 김○○님 장례식 발인이 끝나기도 전인 오늘 11월 26일(수) 새벽, 쿠팡경기광주5센터 아간조로 근무하시던 노동자 한 분의 사망소식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4. 두 노동자의 죽음은 쿠팡물류센터의 로켓배송, 새백배송 마감 압박에 따른 고강도 노동, 휴게시간 없음, 심야·야간노동자 보호 대책 없음과 관련 있습니다. 쿠팡은 정기적인 휴게시간을 보장하거나 인력충원을 통해 노동강도를 낮추는 등의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사망한 노동자들의 지병을 탓하고 있습니다.
5.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규제가 현재 논의중이고 이는 쿠팡의 로켓 배송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였습니다. 택배노동자뿐만 아니라 쿠팡물류센터, 쿠팡캠프에서 일하는 물류노동자의 건강 보호의 필요성 역시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 논의가 결론에 이르기

도 전에 맞이하는 죽음이라 더욱 황망합니다. 2025년에만 쿠팡물류센터에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야간노동자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하는 현장, 쿠팡의 살인적인 노동환경과 중대재해를 방관하는 고용노동부도 공범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쿠팡의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6. 위와 같은 취지에서 11월 27일(목) 1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와 처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쿠팡대책위원회 고태은 집행위원

순서	발언자	내용
1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쿠팡 및 고용노동부 규탄
2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동현 지회장	쿠팡물류센터 야간노동자 사망사건 경과 보고, 동료 노동자 추모
3	쿠팡대책위원회/ 권영국 정의당 대표	쿠팡 및 고용노동부 규탄
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정희 활동가	쿠팡 및 고용노동부 규탄
5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강민욱 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 구호

- 물류센터 노동자가 또 죽었다! 쿠팡이 책임져라!
- 물류센터 노동자가 또 죽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 정부가 나서서 반복된 죽음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정부와 쿠팡은 야간·심야노동 대책 즉각 마련하라!
- 쿠팡은 고강도 노동을 줄이고 휴게시간 즉각 보장하라!
- 정부와 쿠팡은 노동조합과 대책 논의에 지금 당장 나서라!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동현 지회장]

쿠팡물류센터에서 며칠 사이에 두 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올해에만 벌써 네 명의 노동자가 쿠팡물류센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반복되는 쿠팡 물류센터에서의 사망사고, 이제는 끝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쿠팡 새벽배송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지금입니다. 그간의 논쟁들을 바라보며 현장의 당사자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본의 논리와 시민들의 편리함만 논쟁의 중심이 되었고, 로켓배송을 위해 현장에서 로켓의 연료로 소모되어야만 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되어 왔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책임의 당사자인 쿠팡은 꽁꽁 숨어 방관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11월 10일 제주에서 쿠팡 배송 노동자가, 11월 21일, 11월 25일 두 분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연이어 반복되고 있는 쿠팡에서의 사망사고입니다. 로켓배송을 위해 노동자를 연료로 소모하는 쿠팡의 시스템이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11월 21일, 11월 25일 사망하신 노동자 두 분 모두 야간노동을 하시다 사망하였습니다. 이전에 돌아가신 두 분의 노동자도 야간노동을 하시다 사망하였습니다. 고정 야간노동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쿠팡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지병’운운하면서 폄하하는 것이 아닌,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에도 요구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쿠팡에서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해주시실 것을 요구합니다. 쿠팡에서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죽음에는 정부와 관계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쿠팡에 맞서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쿠팡에 책임을 묻고,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11월 21일과 25일 쿠팡물류센터에서 사망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쿠팡대책위원회/ 권영국 정의당 대표 발언문]

11월 쿠팡에서만 세 번째 산재 사망, 얼마나 더 많은 애도를 바쳐야 하나

오늘 새벽 경기 광주의 쿠팡물류센터에서 50대 남성이 업무 중 쓰러져 숨졌다. 11월 쿠팡에서만 10일 제주, 21일 동탄에 이어 세 번째 산재 사망이다. 모두 심야에 발생한 사건이다. 얼마나 더 많은 애도를 바쳐야 하겠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고인의 명복만 빌고 말아야 하는가.

작년 9월 정의당이 주최한 쿠팡 산재 토론회에 참석한 유족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 유족이 세 명이다. 열 명까지 더 만들 거 아니지 않나?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토론회 이후 오늘까지 정확히 노동자 일곱 명이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기어이 열 명이 됐다.

2020년부터 언론에 보도된 쿠팡 사망자만 27명째다. 정말로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만 한다. 쿠팡은 국정감사와 국회 청문회 끝에야 앞선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약속했으나,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쿠팡의 산업구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쿠팡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새벽배송과 심야노동의 대안을 내놓기를 기다렸으나 그런 기대는 결국 공염불에 불과했다. 산재 사망이 반복되는 것이 쿠팡뿐만 아니라 포스코, SPC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명복만 빌고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발본색원 엄포만 놓을 것인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개선할 것처럼 보여주기식 요란만 피우고 실질적으로는 위험한 생산시스템과 원하청 고용·책임구조를 조금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주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강제수사권, 특별근로감독권 등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동하여 죽음을 멈추라. 다만 계 하청구조, 장시간 야간노동, 위험의 외주화, 발주자 원청 경영진의 책임, 권한에 준하는 책임을 구체적인 사례에서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쿠팡, SPC, 포스코 등 사망 다발 대기업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경영진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을 본보기 삼아 성과를 내도록 방안을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야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말풍선은 필요 없다.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연이은 쿠팡물류센터 야간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 기업 쿠팡을 처벌하라!”**

**쿠팡 동탄1센터, 경기광주5센터 사망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5일간 연이어 2명의 쿠팡 물류센터 야간 노동자가 일하던 중 사망했다. 3월 안성, 8월 용인, 지난주 동탄, 그리고 어제 광주까지, 쿠팡 물류센터에서 올해만 벌써 4명째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연달아 목숨을 잃고 있지만 쿠팡 물류센터는 어떠한 변화도 없이 여전히 밤새 가동 중이다. 날이 점점 추워지는 지금, 이대로라면 5번째, 6번째 사망자가 또 나올 것 분명하다. 노동부가 쿠팡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니 쿠팡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 한 죄로 계속 죽어나간다. 직을 걸고 산재 사망을 줄이겠다던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이유는 명확하다. 쿠팡의 노동강도가 살인적이기 때문이다. 쿠팡의 새벽배송을 위해 노동자들은 마감 압박 속에서 휴게시간 없이 고강도의 노동에 내몰린다. 특히나 쿠팡 물류센터는 새벽배송 마감으로 인해 야간에 노동강도가 더욱 세진다. 야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에 분명한 위협이 되지만 쿠팡은 인력충원이나 추가 휴게시간 부여 등 야간 노동자 보호 조치 없이 노동자들을 더 높은 노동강도로 내몬다. 올해 목숨을 잃은 4명의 노동자가 모두 야간 노동자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야만 작동하는 쿠팡의 새벽배송/로켓배송 시스템이 노동자들을 죽이는 범인이다.

쿠팡에서 반복되는 죽음에는 노동부에도 책임이 있다. 산재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내버려 두는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던 대통령의 말은 노동부에게도 적용된다. 노동부가 진작 쿠팡에게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했다면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이대로라면 곧 찾아올 혹한기에 쿠팡의 야간 노동자들이 또다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쿠팡 물류센터 산재 사망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즉각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쿠팡의 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쿠팡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노동부는 쿠팡의 새벽배송 체계와 야간노동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쿠팡의 새벽배송과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번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의 야간노동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노동조합을 참여시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다시는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결의한다.

2025년 11월 27일

쿠팡 동탄1센터, 경기광주5센터 사망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 및 대책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